

예수 탄생이야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마 1장 18절~2장 18절)

박동열*

논문 초록

본 연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8절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그레마스
의 서사기호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연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논
문은 탄생 이야기가 함의한 의미생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이야기가 내
포한 기호서사 구조와 담화구조를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기호서사 구조는 심층
층위와 표층층위로 구성되는데, 우선 심층층위는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가 발견
되는 공간이다. 이 기본구조는 논리-의미적 성격을 띤 기호 사각형 모델에 의
해 공간적으로 표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 구성을 위해 대립관계에
있는 /생명/과 /죽음/이란 두 의미 자질을 제시했고, 이 두 자질로부터 확장되
어 모순관계를 맺는 /비생명/, /비죽음/과 함께 심층구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
악했다. 다음으로 표층층위에서는 통사적 조직을 위한 행동자 모델과 서사 프로그
램이 나타나는데, 본 연구는 행동자 모델을 위해 주체를 예수로, 대상을 구원
으로, 발령자는 성령, 수령자는 자기백성으로 보고, 원조자는 주의 사자, 요셉,
마리아, 그리고 반대자를 헤롯으로 파악하였다. 본문에서 작동되는 서사 프로그
램으로는, 탄생 프로그램, 박탈 프로그램, 구원 프로그램 그리고 예언 프로그램
으로 파악했고, 예언 프로그램이 나머지 세 프로그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담화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본문에 나타난 연기자의
형상들의 관계망 그리고 연기자들의 상태와 변형을 살펴보고, 또 공간을 나타
내는 형상들도 분석하였다

핵심 주제어 : 탄생 이야기, 그레마스 서사 기호학, 기호서사 구조, 담화구
조,
기호 사각형 행동자 모델, 서사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의미 생성을 위한 읽기
- II. 서사구조
- III. 담화구조
- IV. 심층구조
- 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 의미생성을 위한 읽기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첫째, 성경은 영감을 받은 책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책 속에 간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독자 사이를 끊임 없이 오가며 계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읽기는 텍스트 속에 숨겨진 고정되고 폐쇄된 하나의 의미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이 된다. 이와 같이 의미생성의 관점에서 성경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가 이것 만이라고 보는 입장과 한 본문에 하나의 본질적인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하나님의 뜻을 과거에 해석된 것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는 끊임없이 현재성 속에서 그 풍성함을 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읽기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생성의 조건을 추구하는 작업이 된다. 성경의 텍스트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서 진정으로 의미 해석의 정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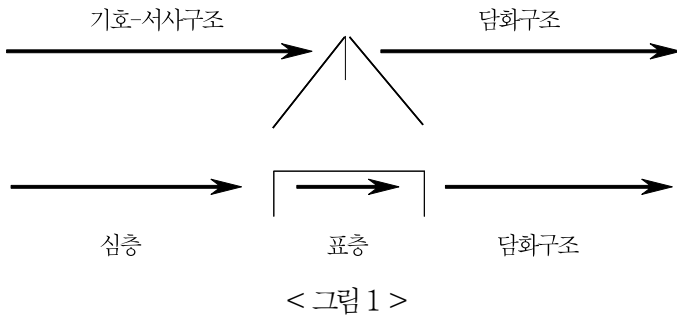
둘째, 본 연구는 텍스트 안에서 기능하는 수많은 의미요소들의 관계망을 모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많은 상관관계들 속에서 하나의 의미 연결 고리를 선택하는 것 일뿐이다. 우리가 텍스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미행로

를 추적할 수 없다. 다만 그 동안 읽었던 수많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행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행로를 선택하는 이상, 당연히 다른 모든 것은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읽기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 읽기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 미완성의 상태를 용인하는 독서행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우리의 연구는 텍스트의 의미구성 법칙을 고려한 기호학적 읽기이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읽히기 위해 만들어진 의미 구성체이기 때문에, 텍스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기호학적 읽기작업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 사이에 맺어지는 의미 관계망들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망은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알지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가 만들고 선도한 괴리학과 기호학 이론¹⁾의 관점의 도움으로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 텍스트 분석을 위해 텍스트에 선행하는 내재적 구조를 가정하고, 또 이 내재적 구조가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이 내재적 구조에 대해 우리는 이 구조가 크게 기호-서사구조(structure sémio-narrative)와 담화구조(structure discursive)로 나뉘어 지며, 또 기호-서사구조는 심층와 표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제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재적 구조들이 위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가장 심층에는 ‘기호사각형’(carré sémiotique)으로 불리는 기본적인 논리-의미관계가 자리를 잡는다. 이 논리-의미관계는 표면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요소들이 심층에서 맺는 불변의 관계다. 그리고 이 관계로 말미암

1) 1966년 그레마스는 레비스트로스의 후원으로 고등연구원과 풀레쥬 드 프랑스에 소속된 사회 인류학 연구소에서 ‘기호언어학 연구소’(Groupe de recherches sémio-linguistique)를 만들었다. 그래서 점점 그 주위로 프랑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 그의 이론을 연구하고 재해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기호학 학파를 형성하였다. 처음 이 학파의 연구는 그레마스가 제기한 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1990년 이후에는 그의 틀을 벗어나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고 지금도 적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아 텍스트는 일관성 있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층위인 표층에는 서사구조가 있다. 이 서사구조에 행동자(actant)와 가치대상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상태문과 행위문이 생성되는데 이 문장들이 표현하는 서사 프로그램이 이 층위에 놓을 수 있다. 그 다음 층위에는 행동자가 담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결과인 연기자(acteur)들이 담당하는 주제적 역할, 구상적인 것과 주제적인 것, 연기자들의 행동의 시-공간적인 위치의 문제 등이 관련된 담화구조가 놓인다. 이처럼 심층에 있는 의미의 본질적 구조가 여러 층위를 거쳐서 구체적인 텍스트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 기호학이 텍스트의 의미생성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의미 생성 행정(parcours génératif de la signification)을 우리는 다음 도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탄생이야기와 관련하여 심층구조, 서사구조, 담화구조의 개략을 살펴 보면서 의미생성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서사구조

본 텍스트의 탄생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예수의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récit)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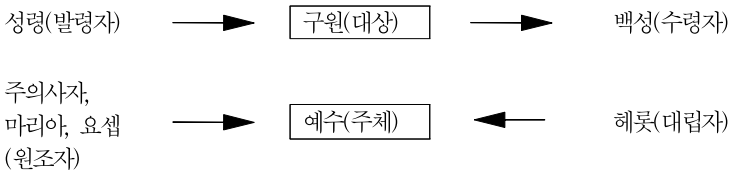
간주될 수 있는 서사성(narrativit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성으로 말미암아 탄생이야기는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의미적 변형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이 탄생 이야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사성이 야기 시킨 변형과정이다. 그런데 이 변형과정은 구체적으로 변형과정을 구조화한 서사 프로그램(programme narratif)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사 프로그램은 행동자(actant)와 기능(fonction)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서사 프로그램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두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행동자와 기능

탄생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사물 혹은 추상적 개념까지 포함하여, 담화차원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서사적 역할만을 하는 존재, 즉 추상적인 기능과 행동 영역만으로 정의된 존재들을 그레마스 용어인 ‘행동자’로 지칭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이 제시하는 것처럼 행동자들을 기능의 관점에서 여섯 명으로 환원시키려고 한다. 행동자 모델에 따르면, 우선 행동하는 자로서 ‘주체’(sujet)와 행동의 대상으로 ‘대상’(objet)이 구분된다. 사실 본 텍스트에서 주체를 누구로 잡느냐는 어떤 읽기를 하는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수’를 주체로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생이야기에서 이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시하는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와 구원은 행동자 기능의 한 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축은 바로 추구(quête)의 축, 갈망(désir)의 축이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러

한 추구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과 함께 중단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다. 한편 대상이 물리적인 대상이든 인식적인 대상이든 간에, 대상을 주는 자와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레마스는 이를 ‘발령자(destinateur)’와 ‘수령자(destinataire)’로 불렀다. 이들 역시 행동자 기능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데, 예수를 주체로 보고 탄생이야기를 읽는다면 ‘발령자’는 ‘성령’이 되며 ‘수령자’는 ‘(예수의)백성’이 된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에 아기 예수를 잉태시키면서 변형을 가져온 조작주체는 성령이기 때문이며, 또 아기 예수를 통해 예수의 백성들이 저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성령이 예수의 백성에게 지정한 임무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임무의 수행을 아기 예수는 받아들여 상태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과 백성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축은 소통(communiqué)의 축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레마스는 ‘원조자(ajutant)’와 ‘대립자(adversaire)’의 대립쌍을 행동자 모델의 또 다른 축으로 소개하고 있다. 원조자는 주체가 대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이고 대립자는 주체의 추구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 탄생이야기에도 이 두 행동자를 적용할 수 있는데, 원조자 그룹에 몇 명의 인물이 속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원조자는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선포하고 아기 예수가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마다 등장하는 주의 사자, 또 예수가 잉태될 것에 대해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마리아, 그리고 주의 사자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는 요셉이다. 이들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기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지켜냈다. 이에 반하여 구원을 향한 아기 예수의 추구를 좌절시키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왕은 탄생이야기에서 대립자가 된다. 이 대립자의 상태는 동방박사의 개입에 의하여 변형되어 아기 예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유아학살을 감행한다. 이처럼 세 쌍으로 이루어지는 여섯 명의 행동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자 모델을 이룬다.



< 그림 2 >

이와 같은 행동자 모델은 본 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일뿐이며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예수가 아직 지식(savoir), 의지(vouloir), 능력(pouvoir)이란 양상적 측면에서 전혀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행동자는 성령이고 잉태와 도피 그리고 귀환을 지시하면서 구원의 추구를 이끌고 있는 행동자는 주의 사자이다. 결국 탄생이야기의 주체가 아기 예수로 볼 수도 있으나 심층적으로 실제주체는 주의 사자 혹은 성령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서사프로그램에서 기능이란 행동자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 서사문의 최소 표준형식은 F(A)(F는 기능, A는 행동자)로 표현된다. 그래서 기본 서사문은 적어도 두 행동자 사이의 기능으로서의 관계를 맺는데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문제시 될 때는 F(S→O)로 표기하고, 발령자와, 대상, 수령자가 문제될 때는 F(D→S→O)로 표기될 수 있다. 그런데 기호학에서 행동자들 사이의 관계인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기능은 주체와 대상 간의 ‘접합’으로서의 기능이다. 접합은 주체와 대상의 상태를 말하는 상태문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접합이 긍정을 지향하고 있으면 ‘연접’으로 표현하고 부정을 지향하면 ‘이접’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상태문은 상태주체와 대상이 연접된 상태문과 이 둘이 이접된 상태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생명이 있다’는 예수와 생명이 연접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사단은 생명이 없다’는 이접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들을

각각 SNO(S는 예수, O는 생명이란 가치대상, N는 연결), SUO(S는 사단, O는 생명, U는 이접)으로 표현한다. 한편, 두 번째 기능은 변형으로서의 기능이다. 앞에서 서사성이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변형이 이와 같은 이행을 조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은 연결 상태문을 이접 상태문으로 변화시키는 이접변형, (SNO)→(SUO), 그리고 이접 상태문을 연결 상태문으로 변형시키는 연결변형, (SUO)→(SNO), 으로서 구분된다. 이러한 변형은 상태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위문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행위문은 변형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행위주체(sujet de faire) 혹은 조작주체(sujet d'opérateur)를 전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체와 대상과의 상태와 이 상태에 작용하는 변형이 텍스트에서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파리학과 기호학에서는 서사 프로그램(programme narratif)으로 명명한다. 그러면 탄생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서사프로그램을 살펴보자.

2. 서사 프로그램

탄생이야기의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우선 예수와 이접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와 연결상태로 변형되고, 이 연결 상태를 파괴하려는 해롯의 또 다른 변형 시도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첫 프로그램은 발령자이자 조작 주체로서 성령이 상태주체인 마리아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여하는 탄생 프로그램이다. 이 탄생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F(1)[S2 \rightarrow \{S1UO\} \rightarrow \{S1NO\}]$$

S2=성령, S1=마리아, O=예수의 생명

탄생 프로그램은 마리아와 예수 잉태라는 가치대상과의 연결으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프로그램인데, 정상적인 탄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태 주체인 여

자가 남자와 함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강제적 임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에 있어서 분명한 조작 주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 프로그램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 주체의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매우 특이하게 성령이란 조작 주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령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에게 아기의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지식과 의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행동자이다.

이렇게 성령이란 조작 주체로 말미암은 탄생 프로그램은 곧바로 탄생된 아기예수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박탈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자신과 대립하는 반대 프로그램을 투사하는 성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대(anti) 프로그램이다. 아기 예수의 잉태라는 탄생 프로그램에 대해 이 반대 프로그램은 예수의 생명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박탈 프로그램은 예상치 않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하여 시작된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온 목적을 헤롯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작동된다. 이 프로그램 역시 상태주체인 아기 예수 혼자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작 주체가 필요한데, 이 조작 주체의 역할은 권력욕을 자극받은 헤롯 왕에게 주어진다. 그는 동방박사와 대체시장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인의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헤롯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유아를 죽이는 반 주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F(2)[S2 \rightarrow \{S1 \cap O\} \rightarrow \{S1 \cup O\}]$$

S2=헤롯, S1=예수(2살 이하 아기들), O=생명

예수의 생명을 이접시키려는 박탈 프로그램은 주의 사자의 적극적인 개

입으로 구원 프로그램을 실현시킨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상실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린 예수 힘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역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작 주체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연기자들은 마리아, 요셉, 주의 사자, 셋이다. 세 연기자 중에서 실제적인 조작 주체의 역할은 주의 사자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만이 아기 예수가 생명이라는 가치 대상과 연결하기 위한 구원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데 필요한 확실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원 프로그램의 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F(3)[S2 \rightarrow \{S1 \cup O\} \rightarrow \{S1 \cap O\}] \quad S2 = \text{주의 사자}, S1 = \text{예수}, O = \text{생명}$$

이 구원 프로그램은 모든 사건을 감찰하고 있는 주의 사자가 제공하는 능력에 의하여 실현되며, 또 주의 사자의 계시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원조자에 의하여 실행된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모의 협력 속에서 주의 사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구원할 목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개입은 마리아를 떠나려는 요셉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헤롯의 학살로부터 예수를 미리 피신시키기 위해 그리고 헤롯의 죽음으로 위기가 사라져서 나사렛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세 번 반복되었으며 또 헤롯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방박사에게 한 번 개입하였다.

결국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이와 같이 탄생 프로그램, 박탈 프로그램, 구원 프로그램의 연쇄 속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층위의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서술자 층위에서 작동하는 예언 프로그램이다. 다른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작중 인물 층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예언 프로그램은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서술자의 시각으로 다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조망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다른 세 프로그램의 진실성과 의미를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탄생 이야기 속에 장착해 놓은 서술자에 의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상태 주체는 선지자의 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태 주체가 추구하는 가치대상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의 실현이다. 본 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이 예언 프로그램이 완벽히 실행되었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이 예언 프로그램도 스스로 실현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이 예언 프로그램은 여러 사건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들의 최종 주체가 예언 프로그램의 조작 주체가 된다. 우리는 이 예언 프로그램의 조작 주체가 성령과 주의 사자라고 생각한다. 이 조작 주체들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반주체인 헤롯 그리고 제3의 행동자인 동방박사의 도움으로 예언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F(4)[S2->{S1∪O}->{S1∩O}]

S2=성령, 주의 사자, S1=선지자의 말, O=실현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이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예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술자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으로서 사건의 진실성과 사건의 의미에 대한 강력한 변호를 표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의 조직은 담화 구조에서 여러 단어들과 표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I. 담화구조

서사구조가 텍스트의 골격 같은 것이라면 담화 구조(structure discursive)는 추상적인 골격에 구체적인 자질이 부여되는 장소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기호-서사구조가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실현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구조

이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구조에 속하는 언어적인 표현들의 조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낱말들이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낱말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보다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 사이에서 나타난 어떤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전체 속에서 일관성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반복적으로 대립되는 의소와 의미의 동위성(isotopie)²⁾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연기자

이야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에서는 늘 ‘작중인물(personnage)’보다는 ‘행동자’ 또는 ‘연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작중인물이라는 용어가 문학 텍스트에서 인간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호학에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타난 어떤 추상적 대상 일체를 포함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앞의 서사구조에서 우리는 서사 프로그램의 통사단위를 구성하는 추상적인 존재들, 즉 주체, 대상, 발령자 등을 행동자라고 불렀다. 이 경우 행동자는 물론 추상적 역할을 담당하는 육체를 갖지 않은 추상적 존재로서 서사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위상과 양상에 따라 몇 가지 행동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자가 담화구조로 넘어 오게 되면 연기자acteur로 전환된다. 그것은 서사 구조를 떠나면서 행동자가 담화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을 구별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기자들은 하나 이상의 행동자 역할을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주제적 역할을 부여 받는다. 다시 말해 어떤 연기자는 어느 시점에서 상태 주체가 될 수도 있

2) 동위성은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의미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담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미범주 또는 언어적 범주들의 집합이 반복됨으로써 동위성을 인정받는다. 안느 에노(1997: 71-83), 김성도(2002: 109-127)를 참조할 것.

으며 조각주체가 될 수도 있는 등 하나 이상의 행동자 역할을 부여 받는다. 주제적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탄생 이야기에 나타난 요셉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 1)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하여
- 2)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 3) 요셉이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 4)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 오니라

이 묘사에서 우리는 공통된 핵심의소(sème nucléaire)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의 공통된 문맥의소(sème contextuel)를 찾을 수 있는데³⁾ 그것은 /순종/이다. 위의 서술은 모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르는 장면들인데 /순종/의 문맥 요소들은 반복하여 나타남으로서 의미의 동위성을 확립해 준다. 즉 요셉의 속성을 나타내는 위의 단위들은 /순종/이란 하나의 주제적 단위를 형성하고 이 주제적 단위를 요셉이란 연기자가 떠맡는다. 이 경우 요셉의 주제적 역할은 /순종/이 되며 이 주제 안에 여러 가지 형상figure들이⁴⁾ 압축된다. 이렇게 주제적 역할을 한 인물이 떠맡을 때 그 인물은 비로소 연기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주의 사자에게 순종함으로써 아기 예수의 생명을 취하고 보존하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에는 마리아도 포함된다. 즉 마리아도 결혼 전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을 허락하고, 애굽으로 도피와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종용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주제적 역할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두 인물은 모두 주의 사자의

3) 핵심의소란 문맥이 어떠한지 간에 어휘소에 항상 존재하는 의미작용의 최소요소를 말한다. 반면에 문맥의소는 둘 이상의 어휘소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는데 이 의미요소를 문맥의소라고 한다. 이 문맥의소는 문맥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4) 형상이란 용어는 수사학에서 은유, 환유, 제유 등을 의미하는 '문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곳 기호학에서는 내용단위를 의미한다. 즉 행동자 역할과 행동자에게 주어진 기능들에 어떤 구체적인 자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뜻을 따르는 /순종/이란 주제적 역할을 떠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목적은 물론 아기 예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자/란 주제적 역할을 맡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한 것이다. 주의 사자는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단절하려는 순간,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넘기려는 순간, 유아 학살이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모든 위기가 해소된 순간에 적절히 개입하여 /구조자/란 자신의 주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주의 사자는 /생명/이란 주제로 결합될 수 있으며, 주의 사자와, 요셉과 마리아의 구분은 /영적 존재/냐 /자연 존재/냐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탄생 이야기에서 /생명/에 대해 /비 생명/에 속한 연기자들을 대립시킬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살인/이란 주제적 역할을 맡은 헤롯을 들 수 있고, 이 /살인/을 위한 /정보제공/이란 주제를 담당하는 동방박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헤롯과 나머지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주도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방박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의도의 관점에 있어서 구별을 보인다. 즉 동방박사는 비록 그들의 행동이 살인의 결정적 동기가 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연기자이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특별한 간섭을 받는 은혜가 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살인에 공조한 /공범자/란 주제적 역할을 맡고 있다.

끝으로,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연기자들은 이들에게 부여된 명칭의 특질에 의해 서로 결합되고 대립되기도 한다. 우선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박사는 사회적, 직업적 특질이 부여되어 있고 예수, 요셉, 마리아는 개별적 특질이 부여되고 있다. 탄생이야기에서 위기상황은 개별적 특질만이 부여된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사회적, 직업적 특질인 유대인의 왕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생긴 대립 때문이다. 동방박사에 의해 예수가 개별적 특질과 사회적 특질

을 소유하게 되면서 탄생 이야기는 헤롯왕국과 예수가 구성할 왕국과의 대립의 문제로 확대된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유아학살이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 반면 주의 사자는 자연적 존재인 다른 연기자와 분명하게 대립된 영적 특질이 부여된다.

2. 연기자들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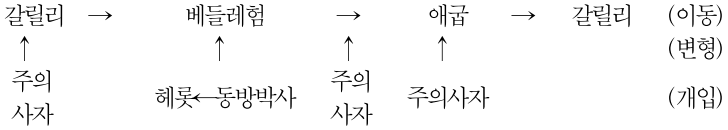
탄생이야기에 나오는 연기자들의 행동에서 의미의 동위성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연기자들은 이 예수의 잉태를 중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수용/하는 집단과 이 생명을 /거부/하고 생명을 박탈하려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탄생 이야기를 여러 의미의 동위성 위에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추출한 /수용/과 /거부/리는 의미의 동위성 속에서 본 텍스트에 나타난 표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마리아는 조작주체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수태를 허락하여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생명을 /수용/하는 집단의 핵을 이룬다. 이에 반해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는 연기자의 핵은 헤롯 왕이다. 그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수용/에 대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이려는 /살해지시/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대립한다. 마리아와 헤롯의 대립은 다른 차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마리아의 /수용/의 동인은 /성령/이지만 헤롯의 /거부/의 동인은 또 다른 유대의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인간적 권력욕/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인간적 권력욕/이 예수의 생명을 둘러싸고 대립된다. 요셉의 경우는 좀 특이한 행로를 보인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 그의 첫 반응은 /거부/이다. 그는 자기와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시도하여 /거부/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주의 사자

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선택하여 예수의 생명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비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여 /애급으로 피하여/ 예수의 생명을 지켜갔고 또다시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옴/으로 예언을 이루었다. 또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용/의 동위성은 /현몽하여/이다. 요셉의 꿈속에서 일어난 /현몽/은 예수의 생명을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에 대해 /거부/의 상태에는 /현몽이 없음/의 상태가 대립된다. 그리고 /현몽/은 필연적으로 /주의 사자의 지시/와 관련을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수용/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반면에 예수 생명의 /거부/에는 주의 사자의 /지시가 없는/상태임으로 동방박사와 대체 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인간적 정보들/이 그것에 대치가 된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에서 /수용/과 /거부/의 대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와 /인간적 정보/의 대립으로 환원될 수 있다.

한편, /수용/과 /거부/는 아기 예수가 겪는 쾌(euphorie)와 불쾌(dysphorie)의 상태로도 환원된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경배된/, /예물을 받은/, /별이 인도한/, /보호받는/, /꿈에 지시된/ 상태는 쾌의 상태이지만, /애급으로 피신한 /,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갈릴리 지방으로 떠난/은 불쾌의 상태에 속한다. 결국 쾌의 상태는 /수용적/이고 /포용적(inclusif)/ 행동에서 비롯되고 불쾌는 /거부적/이고 /배타적(exclusif)/ 행동에서 비롯된다. 사실 마리아, 요셉, 주의 사자, 동방박사의 추구는 예수의 추구와 양립할 수 있는 반면에 헤롯과 대체 사장과 서기관의 추구는 예수의 추구와 배타적인 관계에 놓인다.

마지막으로 /수용/과 /거부/를 공간적 관계 속에서 조명해 보자. 탄생이야기에서 /수용/은 늘 공간의 이점으로 표현되어 /공간의 이동/을 드러낸다. 우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마리아 자궁 속으로의 커다란 공간의 이동이다. 이 이동에서 시작하여 마리아, 요셉, 예수는 갈릴리, 베들레헴, 애급,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이동은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의 사자, 동방박사, 헤롯왕의 개입에 의해 변형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 그림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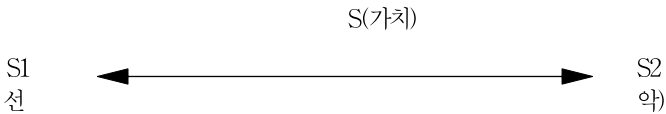
그러나 /거부/는 공간의 연접으로 표현되어 예루살렘이란 /공간의 정체/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거부/에 속하는 연기자는 늘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공간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이 공간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끝없는 /이동/을 감당하는 /수용/에 속한 연기자들이다.

IV. 심층구조

1. 기호 사각형

지금까지 우리는 텍스트에 가장 인접해 있는 담화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제 는 텍스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담화에 잠재되어 담화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심층구조를 살펴보는 일이 남아있다. 우리는 의미형성을 생성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레마스 이론의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생성의 기저를 이루는 심층의 기본구조에 대해 그가 완성한 모델인 기호사각형(carré sémiotique)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 기호사각형은 의미의 생성과 파악을 ‘차이’라는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는 구조주의적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의미란 분절되어야만 파악될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선’이란 것은

‘약’과의 차이에 의하여 분절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이야기의 전체 의미란 것은 하나의 공통의 의미적 축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주제(혹은 그 이상의 주제)가 대립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공통적 의미의 축 위에 대립하는 두 주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의 기본구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검정’과 ‘흰’은 ‘색깔의 부재’란 공통분모를 통해 대립되고 ‘아빠’, ‘엄마’도 ‘부모’라는 공통분모에 의하여 대립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 의미의 기본구조는 다시 그 분절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기호사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분절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담화 속에 잠재된 심층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기호사각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앞에서 언급한 /선/과 /약/을 예로 들어 보자. /선/과 /약/은 가치라는 의미 축을 분절하면서 반대관계(relation de contrariété)에 놓여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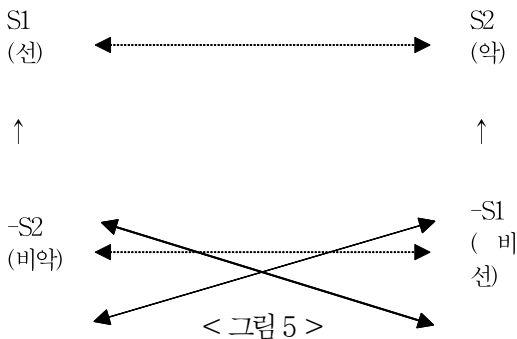
이 반대 관계는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하나의 항목을 전제하고 하나의 부재가 다른 하나의 부재를 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이 약을 전제하고 약이 선을 전제한다. 그런데 S1과 S2는 각각 그 모순관계(relation de contradiction) 항인 -S1(非선)과 -S2(非약)을 투사한다.

$$S1 \rightarrow -S1$$

$$S2 \rightarrow -S2$$

이와 같은 모순관계는 두 사항, 즉 /선/과 /비선/ 또는 /약/과 /비약/이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반면에 반대관계에 있는 /선/과 /약/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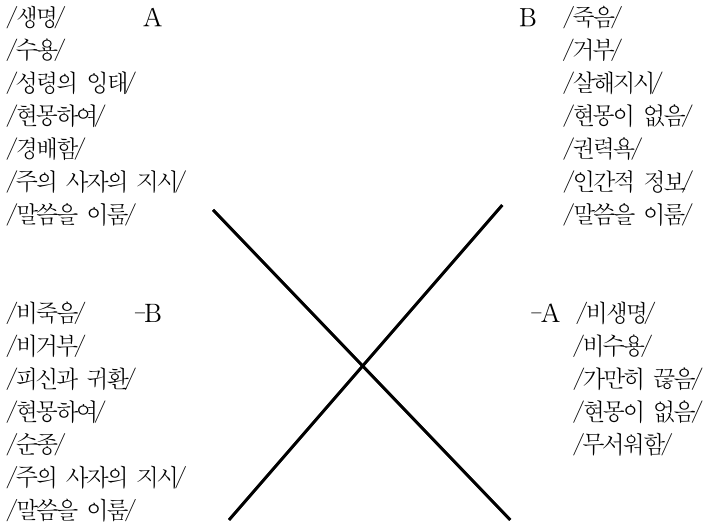
공존할 수 있다. 한편 하부에 있는 /비선/과 /비약/은 서로가 상호 전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항 사이에는 하위 반대 관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비약/과 /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약/을 긍정하면 /선/이 되고 /비선/을 긍정하면 /약/이 되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이 관계는 /비약/ 은 /선/을 함의하고 /비선/은 /약/을 함의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S1과 -S2, S2와 -S1는 두 사항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함의 관계(relation d'implication)가 된다. 이렇게 하여 기호 사각형은 하나의 의미 범주를 분절하는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위의 '가치'의 범주를 기호 사각형으로 분절하면 다음과 같다.



2. 탄생 이야기의 논리-의미적 모델

위에서 언급한 기호 사각형은 담화의 전체 의미를 조직하는 의소들 사이의 관계들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논리-의미모델'(modele logico-sémantique)의 일종이다. 이 기호 사각형으로 탄생 이야기의 의미 내용을 이루는 단위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탄생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는 의미 범주, 즉 주제화는 /생명/ 자질 대 /죽음/ 자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명/ 대 /죽음/의 의미대립은 앞에서 추출한 의미단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호 사각형 안에 표시될 수 있다.



< 그림 6 >

위 도표에서 우리는 A항과 B항에 /수용/과 /거부/리는 기본 자질을 놓았다. 이 자질들은 본 텍스트에서 치열한 반대 관계에 놓여있으며, 이와 같은 반대 관계로 인해 텍스트 속에서 각 자질들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모순관계에 있는 A와 비A(-A) 자질들은 ‘생명의 수용’이라는 동위성 위에 있고 B와 비B(-B)는 ‘살해시도’라는 동위성 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위성 위에 각 항에 해당하는 자질들은 텍스트에서 만날 수 있는 형상들을 나타낸다. 한편 탄생이야기는 A에서 시작되어 -A에 왔다가 곧바로 A로 다시 복귀한다. 그 후에 텍스트는 B로 전개되며 최종적으로는 -B로 이행하는 행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생명을 자궁 속에 품으면서 ‘생명’이란 자질 A가 시작된다. 이어서 요셉은 ‘생명의 수용’이라는 의미의 동위성 위에서 처음에는 A를 부정함으로 비-A에 도달

한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로 인하여 곧바로 A로 복귀하고 예수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한편 동방박사의 개입으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인 B를 긍정한다. 이에 대해 요셉과 주의 사자는 ‘살해시도’라는 의미의 동위성 속에서 B를 부정하기 위해 애굽으로의 피신과 갈릴리로의 귀환인 -B에 도달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탄생 텍스트에서 특이한 점은 /죽음/이라는 자질을 포함한 거의 모든 행정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짐/이라는 의미자질 아래 포섭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행정들, 즉 예수의 잉태와 출산지, 애굽으로 피신과 유아학살, 나사렛으로의 귀환 등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의 결과임을 강력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행정들이 예언의 진실성을 강력히 증거 하게 된다.

위의 논리-의미적 모델은 인물들의 상태와 변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델은 탄생 이야기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형상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담화구조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공간의 형상들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자질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생명/이라는 의미자질은 늘 공간의 이동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간의 이동은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선 이동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의거한다면 예수의 부모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하러 간 그곳에서 예수를 낳는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후에 생긴 예수의 탄생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를 찾아 먼 이동을 한 사람들은 정확히 지명이 언급되지 않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들은 별의 인도를 좇아 아기 예수의 생명을 경배하기 위하여 긴 이동을 하였다. 그들은 이동 중에 예루살렘에 들리어 헤롯을 만나 큰 소동을 일으킨 후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한다. 한편 갓 태어난 아기 예수의 생명을 헤롯이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자 마리아와 요셉은 떠나면 애굽으로 피신한다. 애굽으로의 이동과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귀환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진 비우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애굽으

로의 공간 이동은 독자들에게 매우 특이한 모형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모델을 연상하게끔 한다. 모세는 애굽 출신으로 갓 태어날 때 아기 예수와 마찬가지로 살해의 위협을 당했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러한 모세의 이미지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아기 예수에게 투사되고 있다. 한편 /생명/의 자질에 반대되는 /죽음/의 자질은 이동이 없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정체되어 있다. 살아있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잠재적인 왕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이용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아들을 학살하려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능력은 권좌가 있는 예루살렘이란 정체된 장소에서 발휘되고 있다. 그러므로 늘 이동하는 /생명/대 정체된 /죽음/의 자질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예수 탄생 이야기라는 텍스트가 구축한 의미 요소들의 관계망과 의미생성작용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함으로 탄생이야기 분석에 관한 우리의 시도를 마무리하겠다.

첫째, 앞으로 전개될 흥미로운 예수 이야기의 서두를 장식하는 부분인 탄생 이야기에는 서술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또 이 서술자는 구약의 예언을 서술하고 있는 탄생에 관한 에피소드들과 병치시킴으로써 예언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 자신의 해석을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본 텍스트에서는 예언 프로그램이 다른 여러 프로그램, 즉 탄생, 박탈, 구원프로그램을 지배한다. 텍스트에 나타난 탄생에 관한 에피소드들은 실현된 예언에 관한 강한 증거물이 된다. 그 결과 탄생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언의 실현의 결과로서 예수 탄생 사건을 강하게 변호하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반영된 텍스트이다. 이러한 의도

로 인하여 본 텍스트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작중인물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한 묘사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절제가 되었으며 그들과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는 서술자의 일차관심사가 아니다.

둘째, 서술자의 해석이 분명한 탄생 이야기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의미자질로써 해석될 수 있는 긴박한 대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다시 말해 예수 탄생 이야기는 단순한 탄생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이 잠잠히 잠재되어 있었던 죽음의 잔인함을 일깨워 치열하게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생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미요소들 또는 작중인물들은 이 두 의미자질을 중심으로 새롭게 배치될 수 있으며, 또 이것들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자질이 확장된 기호사각형 도식으로 통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란 자질의 대립은 공간의 형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생명의 자질은 늘 공간의 /이동/, /흐름/, /주변부/, /침투/와 연결되어 있고 /죽음/의 자질은 공간의 /정체/, /방어/, /핵심부/, /선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자질들은 쉽게 /생명/과 /죽음/의 자질을 힘의 균형이란 의미의 축으로도 환원될 수 있다. 즉 /생명/은 /무력/, /가난/, /도피/와 연결되고 /죽음/은 /권세/, /부함/, /추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가 시도해 본 기호학적 성경읽기는 본문의 기능 작용과 의미구조를 발견하게 하고 본문을 산출케 하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본문의 구조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려는 이와 같은 성경읽기는 방법론적 엄격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본문에 대한 분석가의 고유한 새로운 형식을 가진 본문을 창출해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같은 산출은 분석의 작업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분석 작업의 부산물로 덩으로 생길 수도 있다. 분석가가 본문 안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명백히 느끼는 이 새로운 형식은 깨달음을 통한 자신의 새로운 언어이지만, 분석가는 늘 자의적인 해설을 하고 싶

은 유혹과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면의 의미구조에 대한 각성의 순간에 해석의 모험심에 대한 유혹을 최대한 절제하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지속되는가이다.

참고문헌

- 김성도 (2002), 『구조에서 감성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인철 (2003), 『과리 학과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서인석 (1984), 『성서와 언어과학』,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안느 에노 (1997), 『기호학으로의 초대』, 서울: 어문학사.
Adam, J. M. (1984), *Le récit*, Paris, PUF.
Adam, J. M. (1985), *Le texte narratif*, Paris, Nathan.
Courtés, J. (1976),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s narrative et discursive*, Paris, Hachette.
Courtés, J. (1976), *Sémantique de l'énoncé : applications pratiques*, Paris, Hachette.
Greimas, G. J. (1966),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Greimas, G. J. (1970), *Du sens: essais sémiotiques*, Paris, Seuil.
Hénault, A. (1983),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PUF.
Panier, L. (1991), *La naissance du fils de Dieu*, Paris, Les éditions du Cerf.

Résumé

L'analyse sémiotique du récit de naissance de Jésus (Matthieu 1,18-2,18)

Dong Yeol Park*

Nous proposons ici une étude du récit de la naissance de Jésus en Matthieu 1,18-2,18. Ce travail a été réalisé dans le cadre de la sémiotique narrative de Greimas. On y trouvera, suivie avec soins et de manière assez exemplaire, la démarche d'une analyse du parcours génératif de la signification. Par cette analyse précise, nous construisons par touches successives la structure sémio-narrative et la structure discursive déployée par le texte de Matthieu,

Quant à la structure sémio-narrative, elle se compose successivement du niveau profond et du niveau superficiel. L'organisation de la structure élémentaire de la signification est située au niveau profond de nature logico-sémantique. Elle prend la forme d'un modèle bien précis, spatialement représentable par le carré sémiotique. Pour illustrer concrètement cette structure élémentaire de la signification dans le récit de naissance, nous avons appliqué ce carré sémiotique à notre texte. Dans ce travail, nous avons proposé deux sèmes contraire, 'vie' et 'mort' qui indiquent l'existence de leurs termes contradictoires. En distribuant des traits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émiologiques de notre texte au modèle du carré sémiotique, nous avons obtenu la structure profonde. C'est au niveau superficiel que les prédicats-qualificatifs et fonctionnels-sont pris en charge par les actants du point de vue syntaxique. On y trouvera la structure narrative représentée par le modèle actantiel et le programme narratif, rendant compte de l'organisation syntaxique de l'acte. Dans cette étude, nous sommes attachés à la description du modèle actantiel en distribuant le rôle actantiel aux actants de la manière suivante: sujet-Jésus, objet-Salut, destinataire-Saint-Esprit, destinataire-Son peuple, adjuvant-Ange du Seigneur, Joseph, Marie, opposant-Hérode. Et en tant que programme narratif, nous avons remarqué quatre programmes: les programmes de naissance, de privation, de salut, et le programme de prophétie qui domine les autres programmes.

Et, pour montrer la structure discursive, nous avons analysé un réseau de relations des figures d'acteurs et de la dimension de l'espace qui donne forme à la signification que la lecture découvre

Mot-Clé : Récit de naissance, La sémiotique narrative de Greimas, La structure sémio-narrative, La structure discursive, Le carré sémiotique, Le modèle actantiel, Le programme narratif.